

# 광주 코카콜라 시위현장 줄부상에 줄입건 경찰 과잉대응 놓고 논란 확산



경찰이 지난 8일 광주시 북구 양산동 코카콜라 광주공장 앞에서 운송로 인상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는 화물연대 광주지부 코카콜라 분회 소속 노조원들을 제지하고 있다.

경찰이 생존권 보장을 주장하며 시위에 나선 코카콜라 운송노조원을 무더기 연행하자 과잉대응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경찰은 특히 단순 시위 가담자에 대해 구속영장까지 신청했다가 기각 당한 바 있고, 시위현장에서는 노조원과 경찰의 부상이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각에서는 경찰이 일방적인 법 집행보다는 대화를 통한 중재역할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지만, 올해 경찰청이 주요 사업으로 도입한 '대화경찰제'조차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그 배경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광주북부경찰과 민주노총 광주본부 등에 따르면 광주북부경찰은 화물연대 광주지부 코카콜라 분회 소속 노조원들이 운송로 인상 요구 집회를 시작한 지난날 17일부터 이날까지 노조원과 가족 등 11명을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여기에는 코카콜라 분회 소속 전체 노조원 20명 가운데 9명이 포함돼 있다. 또 지난 8일 경찰 3명, 노조원 5명이 몸싸움 도중 다치는 등 이번 집회기간 동안 모두 9명이 병원에 입원했거나 치료를 받았다.

특히 지난 2일 밤 북구 양산동 코카콜라 광주공장 앞에서 경찰의 어깨를 밀치고 출차를 방해한 혐의로 A(3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기각하며 경찰의 과잉대응이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다수의 노조원이 입건되고 부상자가 속출하게 된 이유를 놓고 경찰과 운송노조 측은 상대방의 잘못을 주장하며 대립하고

시위 노조원·가족 등 11명 입건 코카콜라 분회 20명 중 9명이나 단순 가담자 영장 신청했다 기각 경찰 "도로 점거 등 불법행위" 노조 "사측만 배려하며 자극" '대화경찰관제' 미활용 지적도

있다. 정작 이번 사태를 일으킨 핵심인 사측 코카콜라만 빠져 있다. 광주 북부경찰은 현재 노조원들이 도로에 누워 차량 진출입을 방해하거나 계란을 던지고, 이를 말리는 경찰을 폭행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이상 입건이 불가피하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

반면 노조 측은 "경찰이 과도할 정도로 사측 입장만 배려하면서 집회 참가자를 진압하고 자극해 몸싸움이 시작됐다"고 반박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북부서가 '대화경찰관' 제도를 도입했다면 지난 8일 다수의 부상자까지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대화경찰관'이란 별도 식별 표식을 부착하고 집회 현장에 투입돼 집회 주최자나 참가자의 의견을 경찰 측에 전달하는 소통창구 역할을 하는 정보·경비경찰을 일컫는다. 문재인 정부는 백남기 농민 사망을 계기로 추진한 경찰개혁 방안에서 스웨덴 경찰이 운영하는 '대화경찰관' 제도를 지난 8월 시범 도입했으며 지난 5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돼 벌써부터 여러 현장에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

하지만, 북부경찰은 이번 코카콜라 농성장에 대해서는 '대화경찰관' 투입을 고려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화경찰관제'가 코카콜라 농성이 시작된 이후 전국으로 확대 시행된데다, 도입 초기 인 탓에 바로 투입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굳이 대화경찰관이 아니더라도 기존 집회·시위를 담당하는 정보관들이 충분히 노조측과 대화를 하고 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이 같은 경찰의 주장에 대해 노조측은 경찰이 대화는커녕 노동자를 외면하고 강경 대응하고 있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김영권 화물연대본부 광주지부 2차회장은 "그동안 경찰이 노조원들의 조그마한 행동에도 감정적으로 과잉 대응하면서 이에 자극받은 노조원이 반발해 몸싸움이 벌어졌고, 입건되는 상황이 되풀이 됐다"면서 "다만 최근 언론 등에서 경찰의 과잉 대응을 지적한 이후 사측과 교섭이 진행되는 동안 정문병력을 일부 철수하는 등 다소 변화한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화물연대 노조원들은 '운송로 현실화' 등을 요구하는 현수막을 차량에 내걸었다는 이유만으로 노조원 20여명이 코카콜라 운송사 GU 측으로부터 해고와 다름없는 배차 배제 조치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지난날 17일부터 공장 정문 앞에서 농성하고 있다.

/김홍희 기자 kimyh@kwangju.co.kr

# 전두환 재판 해 넘길 듯... "광주서 못 받겠다" 항고

대법 결정까지 일정 연기 지연 핏수에 비난 잇따라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87) 전 대통령이 '광주에서 재판을 받을 지', '서울에서 재판을 받을 지' 여부가 사실상 대법원의 손으로 넘어갔다. 전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 광주고법의 관할 이전 신청 기각 판결에 불복해 즉시항고했기 때문이다.

결국 전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대법원의 판단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게 되면서 재판 일정도 해를 넘길 것으로 전망돼 재판 지연을 위한 또 다른 핏수가 아니냐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10일 광주고법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광주고법의 관할 이전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 지난 8일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기본적으로 관할이전 신청은 항고가 불가능하지만, 전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형사소송법 제415조 '항고법원 또는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해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항고를 했다는 입장이다.

광주고법은 전 전 대통령이 주장하는 즉시항고 이유는 대법원에서 판단할 사항이라며, 관할이전사건 기록을 대법원으로 송부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전 전 대통령의 즉시항고 사건이 성립하는지와 항고를 받아들일지 등을 판단하게 된다.

결국 대법원이 즉시항고 이유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하면 재판은 그대로 광주지법에서 열리게 되며, 항고이유를 받아들여 기존 판결을 파기하고 광주고법에 환송할 경우엔 별다른 변수가 없는 한 재판관할지가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전된

다. 전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 항고함에 따라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공판기일도 상당기간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법은 당초 지난 1일을 이 사건의 두번째 공판기일(재판)로 정했지만, 전 전 대통령측의 갑작스런 관할이전 신청으로 일정이 연기된 바 있다.

조진태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는 "핏수에 핏수를 더해 재판을 연기하려는 의도로 보인다"면서 "대법원은 신속하고 현명한 판단을 내려 전 전 대통령이 광주에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 때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해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적시해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광주 동구, 관할 아동보육시설 특별감사

인권·보조금 집행 등 점검 학대 의혹 시설 전수조사

광주시와 동구청 등이 관할 보육시설에서 여성 보육원생을 학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도, 관리·감독기관 조치가 미흡했다는 광주일보 보도(2018년 10월 10일자 6면)와 관련, 동구청이 지역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10일 동구에 따르면 이번 특별감사는 시설 내 아동학대 및 인권에 대한 내용을 포함, 보조금 집행사항 등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는 특별종합감사로 진행된다. 특히 학대의혹을 받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전체 보육생·직원을 대상으로 사실여부 확인과 아동학대 등을 전수조사하고 있다.

동구는 특히 피해아동이 현재 자립을

준비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전세입대지원 신청, 자립정착금, 디딤씨앗통장 안내 등 홀로서기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본인의사를 반영해 자립 시까지 타 시설 전원조치, 임시보호시설 물품 등 적극적인 보호대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동구 관계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전수조사 결과와 구 자체 특별감사 결과에 따라 해당시설에 대한 고발조치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라면서 "문제가 된 시설에 대해서는 상시모니터링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홍희 기자 kimyh@kwangju.co.kr

# 광주 사립고교 시험지 유출 혐의

## 행정실장 징역 4년·학부모 3년 구형

검찰 "죄질 불량"

고3 내신 시험문제를 유출한 혐의로 구속된 행정실장과 학부모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광주지법 10단독 (류종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광주 모 고등학교 행정실장 A(58)씨에게 징역 4년, 학부모 B(여·52)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A씨는 학교 보안을 담당하는 행정실장으로서 통제구역인 등사실에서 시험지를 유출해 죄가 무겁다. B씨는 사건을 주도하고 범행 장소에 대해 거짓 진술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 4월 20일과 7월 2

일 광주 모 고교 3학년 1학기 이과 중간·기말고사 시험문제를 통째로 빼들려 교욱행정을 방해한 혐의로 받고 있다.

A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대개성은 전혀 없었다. 처음에는 농담으로라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단호하게 거절했으나 A씨가 부모의 마음으로 간곡하게 부탁해 끝내 거절하지 못했다"면서 "학교 운영위원장과의 원만한 관계, 이사장과의 관계 유지 등을 고려해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웠으며 B씨가 시험지를 받더라도 그대로 유출하지 않고 수정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B씨도 "A씨에게 대가를 약속하거나 준 사실은 없다"며 "늦게 얻은 제 자식에 눈이 멀어 해서 안 될 일을 했다.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다"고 진술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경찰, 생계형 절도범에 따뜻한 손길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편의점에서 매일 라면 1개씩을 훔쳐 먹은 50대가 경찰의 도움으로 구형 긴급복지 지원 대상자로 지정되는 등 제기의 발판을 마련.

○...10일 광주동부경찰에 따르면 절도 등의 혐의로 입건된 하모(55)씨는 지난 달 30일 밤 9시20분께 광주시 동구 동명동의 한 편의점에서 라면을 훔치는 등 일주일 동안 매일 라면 1봉지씩 몰래 훔쳐 갔다는 것.

○...하씨는 경찰에서 "일용직으로 생계를 이어가던 중 두달 전부터 일이 끊겨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는데, 경찰 관계자는 "하씨의 딱한 사정을 접한 뒤 긴급복지지원 대상자로 지정되고 공공근로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동구청과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홍희 기자 kimyh@kwangju.co.kr

# 2019학년도 광신대학교 학부/대학원 신입생 모집

사랑과 감사의 64년 1954~2018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 학 부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계열	모집단위		모집인원	
	신 학 과	수 시	정 시	인원
인문	한국어교육학과	3	1	16
	유아교육과	8	2	
사회	복지상담융합학부 (사회복지학 전공 / 교정행정교육상담학 전공)	31	3	
예능	음악학부 (음악학 전공 / 실용음악학 전공)	23	7	

\* 신학과는 군중사관후보생(군중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 한국어교육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증(2급)을 취득할 수 있음.  
 \* 복지상담융합학부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원서접수 및 전형일정

**수시모집** · 원서접수 : 2018. 9. 10(월) ~ 14(금) · 전형일 : 2018. 9. 28(금)  
**정시모집** · 원서접수 : 2018. 12. 29(토) ~ 2019. 1. 3(목) · 전형일 : 2019. 1. 10(목)

## 대 학 원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대 학 원	과 정	모 집 학 과	모집인원
신학대학원	석사	신학과(M.Div.)	65
		신학과(Ph.D.)	6
일반대학원	박사	목회학과(D.Min.)	2
		유아교육학과(D.Ed.)	5
		사회복지학과(D.S.W.)	5
		상담심리치료학과(D.C.S.)	5
		코칭심리학과(D.Psy.)	5
	석박사통합	통합예술통계학과(D.C.S.)	15
		통합예술통계학과(D.C.S.)	10
		신학과(Th.M.)	25
		유아교육학과(M.Ed.)	8
		상담심리치료학과(M.A.)	15
상담치료대학원	석사	청소년상담지도학과(M.A.)	10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사회복지학과(M.S.W.)	20
		평생교육학과(M.Ed.)	10
국제대학원	석사	한국어교육학과(M.Ed.)	20
		음악학과(M.A.)	6
음악대학원	석사	실용음악학과(M.A.)	6

### ▶원서접수 및 전형일정

· 추후 공지

입학문의 ▶ 학부 062) 605-1114 / 대학원 062) 605-1115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백지사로 36